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말씀 잔치로 오세요!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13)

대상: 모든 성도

일시: 6월 25일(금) 저녁 7시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신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이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사탄은 청지기훈련에 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겹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특히 말씀으로 충만한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힘쓰시 가능하면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행 14:23). 청지기훈련 당일, 직할한 기후, 교통, 예배당의 모든 시설, 순서 담당자, 특히 두 시간 가량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청지기훈련 당일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요 16:24).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청지기훈련 안내 및 복음은 본지 7면 참조.

◀다음 주일(27일) 찬양예배 시, 2010년 제3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김철리목, 오후 3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로마서 12:3~8)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사람이 된다(고후 5:14~17).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요 15:4~5). 몸에 붙어 있다는 그 사실로써 그 지체는 존재하고 또 그 지체의 기능을 갖는다. 혼자만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계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 되어야 한다(롬 12:3; 갈 2:20~21).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모든 것이 되려고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롬 12:4~6; 빌 4:8).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이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엡 1:10, 22~23).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영적인 실존이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몸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역시 받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로 함께 동역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롬 6:4~5).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였을 때에 유기체로서 성취해야 할 특별한 기능이 주어졌다(롬 12:7~8).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범하는 것이다(엡 2:10).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된 자로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다. 주신 은사를 그것보다 더 크게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함이나 주신 재능을 감춰버리고 과소 평가하는 거짓 겸손은 다 한 가지로 잘못된 일이다. 비록 아주 작아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때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엡 4:12).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간증한다. “지금까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한다(엡 3:7~9).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사상은 달랐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엡 3:2~4).

각 지체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마다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하여 각 지체는 모두가 창성하도록 서로 돕는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자신을 다른 지체보다 더 높이 내세울 수가 없다. 자기가 받은 은사는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한이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이를 써야 할 것이다(고전 12:4~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 됨 안에서 선물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엮여져 간다. 이때에 각 지체 한자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때까지 장성하게 된다(엡 4:15~16). 아멘.

GOD'S QUESTION

(1)Then Moses said,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or listen to what I say? For they may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 (2)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 (5)"that they may believe that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appeared to you."
(Exodus 4:1~5)

At the burning bush, God was waiting for Moses. He said to him. "Do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Ex. 3:5). God revealed Himself there to Moses, and called him to deliver His people out of their suffering in Egypt. Moses was scared. He had fled Egypt some forty years before because Pharaoh and his men wanted to kill him for killing an Egyptian. He was now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s a shepherd. He was a lonesome refugee. Going back to the scene of his crime where his brethren also rejected him was not something he wanted to do. He had failed miserably trying to help the Israelites then, so why would God want him to help them now. Moses came up with a lot of excuses to God.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or listen to what I say? For they may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Ex. 4:1). He didn't understand that God had chosen him for this job even before he was born. In the midst of his excuses, God gave Moses a question. Let's look at God's question.

God's question was simple. "What is that in your hand?"(Ex. 4:2). God turned Moses from tomorrow's fears and brought him back to the realities of today. He helped him with the one question that he could easily answer now. There was no excuse for not answering it. It was not a hard question. Moses responded. "A staff"(Ex. 4:2). He had his shepherd's crook in his hand. God told Moses to throw his stick on the ground. "So he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became a serpent; and Moses fled from it. But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and grasp it by its tail'—so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it, and it became a staff in his hand—that they may believe that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appeared to you"(Ex. 4:3~5). We need to face up to today's reality. It's easy to dwell on tomorrow's problems. People worry about the environment and whether they will have proper food and air to survive. People worry about the economy and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pay their bills. People worry about their health and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see their children grow up. The list never ends. You need to face the questions you can answer today.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Mt. 6:34). When your life gets difficult or unraveled, remember to think about God's question, so that you can find comfort in His promises.

God's question was strange. "What is that in your hand?"(Ex. 4:2). God already knew the answer. Moses used his staff for shepherding. He didn't think it could have any value in lead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or in fighting Egyptian soldiers. How was it possible for a shepherd's staff to have enough power to take God's people from a very strong and fortified opposition into the Promised Land? God used Moses' small rod for His own glory. Moses dried up the Red Sea with it(Ex. 14:16) and had water come from a rock to quench the thirst of over two million people(Ex. 17:5~6). Moses did many miraculous things with his staff in the sight of the Israelites. Jesus did the same thing. He took a little boy's lunch that consisted of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Jn. 6:9), and fed over five thousand people with twelve baskets of food leftover(Jn. 6:13). Imagine what he could do with what you have.

God's question is the Savior's question. Jesus wants you to surrender whatever is in your hand to Him. Everything that you think is yours He cannot use, but everything you give to Him He will use for His glory. He will do more with what you give to Him than you can imagine. Think of the poor widow with one son who had only a handful of flour in the bowl and a little oil in the jar, not even enough food for one healthy meal(1 Kgs. 17:8~16). She gave her last meal to Elijah, and in so doing God made sure that her bowl of flour was not exhausted nor her jar of oil was empty all the days of the drought! What have you surrendered to Jesus? Moses took his rod and God used it mightily. "So Moses took his wife and his sons and mounted them on a donkey, and returned to the land of Egypt. Moses also too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Ex. 4:20). Moses obeyed God's call. God wants to use you. Will you surrender all you have to Christ?

My dear friends, your opportunity to answer God's question is fading away. Today is the day! Don't wait, don't hesitate, and don't ignore your calling. I'd like to ask you right now. "What is that in your hand?" Please let God be able to use you and whatever you have for His glory. Amen. 

하나님의 질문

④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 ⑥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4:1~5)



김성파 목사

불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
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
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
습니다. 사십 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
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
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방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외로운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죄했던 곳, 자신의 동포들마저 자신을
거부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 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
님께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
리이다”(출 4:1).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런저
런 이유를 둘러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하였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출
4:2).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모세의 관심을 돌리시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모세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대답을 못할 이유
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대
답했습니다. “지팡이이니이다”(출 4:2). 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
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되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
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 4:3-5).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들은 환경에 대해 염려하면서 자신들이 생존
할 만한 식량과 공기가 제공될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경제를 염려하며
카드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또 자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기
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상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상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출
4:2).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지팡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서 이끌고 나오는 일과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때 쓸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가 막강한 대적들
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권능의 지
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당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출 14:16),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시게
했습니다(출 17:5~6).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
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수님은 어린 소년의 점심 식사였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요 6:9)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요 6:13).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구세주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
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
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외아들
을 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한 끼 식사
로도 부족한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든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왕상 17:8~16).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그
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
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
더라”(출 4:20).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마
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
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②

예고된 흠여짐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흠여짐(배산)을 예고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흠여지리라 하였음이니라”(막 14:27). 마태복음도 제자들의 흠여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기록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목자 흠여지리라 하였느니라”(마 26:31).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칼아 깨서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흠여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슌 13:7).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막 14:29)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는 흠여졌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는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분명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열정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그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른 모든 제자와 함께 흠여졌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각오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의, 경험, 지식 등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제자들의 흠여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에 부정적인 모습만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흠여짐 이전에 있는 긍정적 인 모습을 기록하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아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할까 함이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흠여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요 16:1,32). 또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비록 제자들이 흠여지겠지만 이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눅 22:28~30; 마 19:28). 특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을 위하여 자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제자들의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흠여짐이 시작되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송할 수 있었다(막 14:26).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막 9:42,47). 이전의 나의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34)는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찬 ‘나만의 믿음’을 버려야 한다. 참 믿음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막 4:17). 예고된 흠여짐은 죄 된 우리의 본성을 낳았기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의 은혜로 삶을 따라가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아지(2010. 6. 16)



에녹

(창세기 5:18-24)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무척이나 흠족해 하셨다(창 1:31).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였고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 쫓겨났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다(창 3장).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함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에서 뚜렷이 목격된다. 가인은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허락하셨다(창 4장). 이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은 기록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고, ~죽고’가 반복되는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다.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대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의 고리를 깨는 한 사람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에녹이다(창 5:18).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다(창 5:24). 삶과 죽음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대략 1600년 동안 죄가 판정(창 6:5)했음에도 무엇이 에녹을 이 신앙으로 이끌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동행했는가의 문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 11:4)는 말씀이 해결해 준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행적을 들었던 것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최후순 승위였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특별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에녹은 욕심도 세에 므드셀라를 낳았고 므드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창 5:21~22). 에녹에게도 가정을 비

롯하여 많은 중요한 일상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그와 늘 동행하셨다.

●에녹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 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3~24).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히 11:5). 이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의 오류가 생기도록 하신 것인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죽지 않았던 유일한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이다(계 11:3~6). 여기서 두 증인, 즉 에녹과 엘리야가 죽는다(계 11:7).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았던 에녹의 모습은 곧 마지막 날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고전 15:51).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살전 4:15).

●선지자였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서신을 보면 에녹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경건하지 않은 제인들이 그들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 1:4~5). 이와 같은 에녹의 모습은 앞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요 14:3; 계 22:20).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골 3:1~4).

아담 이후로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대략 1600년 동안 인간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새로운 계보, 즉 은총의 시대를 여셨다(마 1:1,17). 이 은총의 시대는 엘리기 전에 에녹이 있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인간의 역사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이다. 그러고도 우리는 잘난 척한다. 끊임없이 자기의, 경력, 지식을 내세우며 하나님 위에 으르러 한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가득찬가?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였던 에녹처럼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멘.

그 말씀이 망끝까지

16교구 1팀

선교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팀원은 남 1명(팀장), 여 7명으로 총 8명이며, 연령층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16교구는 중국, 홍콩, 용산구를 관할권 내에 두고 있는데, 팀원은 용산구 이촌동 1명, 용산구 청파동 1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중국 신장동에 거주하고 있다. 선교는 1회부터 말게는 10회 정도 다녀온 사람도 있다.

선교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리가 선교 다녀온 안롱병 지역은 씨엠립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인 약 115km 거리에 위치한다. 태국 국경에 인접한 곳이다. 안롱병은 큰 볼거리가 있는 곳도 아니고 여행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도 아니다. 여행자들의 발길이 미미한 씨엠립 북부의 먼지 나는 비포장 도로변에 있는 작은 마을인 뿐이다. 또 치료가 매설된 곳이 없어서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선교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지난해 말에 팀 구성 준비를 시작하여 올해 초 팀을 만들고, 2월부터 팀원 성경례를 시작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하였다. 영적무장을 위해서 기도훈련에 힘써 자체 기도회와 주일 4시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였다. 전 팀원이 교회에서 권장한 b회보다 많은 9~12회 정도 참석했다.

영성 훈련에 특히 집중했다고 들었어.

지난 날의 경험과 지식을 잊지마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 내려놓고 성경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완전한 양복 아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선교해야 함을 숙지하고 훈련에 임하였다. 위크북을 일찍 제작하여 팀 훈련 초기부터 언어·정

팀원 전원이 캄보디아로 안두 차례씩 선교를 다녀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준비의 중심은 다름아닌 기도였다. 지난해 말부터 팀 구성을 준비해 한달동안 1인 3일 간 한 끼 금식으로 영성훈련에 임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역이 더욱 기대되는 16교구팀(b, 3~6, 11, 캄보디아)을 만났다.



보교육·금식·영성훈련에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4월 12일부터 1인당 3일씩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한달 동안 기도한 것이 많은 은혜가 되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팀원도 있었나?

반면 때문에 연약한 몸으로 선교에 동참하기 어려웠지만 함께 해준 이시은 집사, 직장의 어려움과 높은 열도로 고생하면서도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최정일 집사, 직장의 바쁜 일과를 뒤로 미루고 선교에 동참한 양영숙 집사 등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경우이다.

팀장, 팀원과의 조화가 참 중요할데요.

팀장과 팀원간에 불협화음은 없었다.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었다. 연약한 젊음과 같은 존재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중만을 위해 기도했다. 팀원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애달라고 늘 기도했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상대의 눈에 티를 보라고하며, "나의 중

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함으로 나아갔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체험케 해주신 주님! 이 부족한 최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안롱병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영미 집사)

선교지의 영혼을 위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들려진 그대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다 믿기를 기도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들려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은 "그 소리가 내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망끝까지 이르렀다"였습니다. (김영희 권사)

알렐루야! 주님,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곳, 선교지에 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하며 선교지로 향했던 내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사랑의 음성 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시은 집사)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순수한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천만 수염이 끝나고 오후만 수염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아이들과 아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충연교회에서 왜 영어부사를 하게 되었는지 새상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훈하심이 저와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님!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을 특별히 더 축복해주세요! (최정일 집사)

원혜·오남규 기자

국내외국인선교부①

열방(All Nations)이 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국내외국인 선교부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모슬렘국가에서 들어오는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영혼이 이슬람, 불교, 사마리즘과 조상신이 넘쳐나는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의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 여기에 십자가심이 있다. 특히 모슬렘들은 전라적인 계획을 세워 한국에 이미 모슬렘의 기반을 만들어 두었고,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과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이들 중에서도 주께서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복음전과 그 이성을 넘어서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주님께 온 맘으로 헌신할 수 있는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펼친도 사역자 내지 전민인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 자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일 것이다.

충현교회는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선교위원회의 '국내외국인선교부'를 두고 있다. 1996년 스리랑카의 이명희, 말리 부부가 교회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1997년 국내외국인선교부가 조직되어 특히 근로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도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다.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지만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있으며, 이 일을 위하여 외국인 사역자로 헌신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마 9:37~38).

나기태(강도사, 외선부)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막 16:15). 세계 열방이 한양으로 흘러오고 있다. 밍두부는 국내에 채류 중인 외국인인 120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의 저출산과 3D 업종 기피현상,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이제 한국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동맹만 가더라도 러시아 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산역 근처는 중국이 간판으로 넘쳐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온다는 것이다. 초기 이주민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전도 종족으로, 특히 선교 집금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유학생 등, 특히 선교 집금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유학생 등, 특히 선교 집금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유학생 등, 특히 선교 집금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외선부 교사모집

1) 온전으로 섬기실 분

주일 07:30~10:30, 15:00~19:00(경기기림포)

주일 08:30~11:00, 15:00~18:00(경기기림포)

*지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교사로 섬기실 분

충현교의 교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열고,

외국인 영구거주에 관심이 있는 분

문의: 외선부 018-328-4995, 010-9079-5877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4일(월) - 6월 23일(수)	19교구 2팀	김희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7일(월) - 6월 15일(화)	11교구 2팀	김종규
6월 7일(월) - 6월 15일(화)	청년1부 2팀	허민선
6월 8일(화) - 6월 16일(수)	10교구 1팀	정문호
6월 9일(수) - 6월 17일(목)	6교구 2팀	최용길

Elpis

엘피스, 예수 그리스도!

토요일 오후 2시.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점검 쌓이는 과제물, 친구들과 약속, 아르바이트를 뒤로 한 채 대학생들이 하나 둘 여모수아울(제2교육관 4층)로 모여든다. 'ELPIS'라는 커다란 문구와 곳곳에 장식된 풍선들이 오늘의 집회가 특별함을 알려준다. 생소한 단어 'ELPIS'는 무슨 뜻일까? 집회실 입구에서 안내자를 나누어 주는 한 청년에게 물으니, 친절하게 웃으며 엘피어로 '소망'을 뜻한다고 알려 준다.

학업 관리와 취업 경쟁력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항목 같은 시간에 이들을 대학부 집회로 모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과 교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집회실에 들어오니 찬양이 한창이다. 찬양팀 '마라나타'와 인도도 오케스트라의 반주, 그리고 활력 넘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까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까!

이어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한 팀이 나와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그곳에 모인 대학생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결단한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마른 영혼에 단비와 같은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 같았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선서로 성구담 '두드림'의 뮤지컬이 이어졌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 기간만 장장 3개월이 걸렸다는 공연이다. 평범해 보이는 대학생들의 열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함께 선사한 뮤지컬은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임 수밖엔 없었던 운전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자신의 가치관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 예수님을 생각하니 회개와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기결석자들과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진 후 팀별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ELPIS'는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

주님은 이번 엘피스 집회를 준비하며 10년지기 장기결석자와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집회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소망이 꿈이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집회를

오랜만에 나온 장기결석자들과 대학부에 처음 나온 새 친구들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으면 하는 기도와 바람으로 집회를 드렸습니다. 경호성

엘피스 집회에 성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엘피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은배

엘피스 집회를 준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매 집회가 엘피스 집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ELPIS' 집회를 통해 분명이 느낀 것이 하나 있다. 그곳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소홀하지 않으셨다. 세상과 가치관을 좇으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청년의 때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입술의 찬양을 받으셨다. 또한 예배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소망'이 되셨다. 다른 꿈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젊은이들의 고백이 살아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해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입권을 양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은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들의 영혼 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은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때를 살아 가는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소망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대학부 집회 ·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제2교육관 4층

원재 · 노하은 기자

영아부 아빠 초청 잔치



권사수련회를 마치고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양이 흘러 나오는 갈릴리회에서 얼굴에 마냥 기쁨이 넘치는 권사님들. 예쁜 얼굴뿐 아니라 웃도 예쁘게 치려 입고 오신 권사님들은 예쁜 믿음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미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는 믿음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신다. "더욱이 충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줄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소문난 교회를 만들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강해와 특강을 해 주신 목사님들, 찬양인도와 중창으로, 성경암송으로 또한 주일에 있을 권사 찬양 연습으로, 순서 순서마다 질서있게 진행된 수련회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있는 시간 시간마다 천국의 시간을 가지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재인식하게 하였고 직분자로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하다. "나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사모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인익(권사, 24교구)

지난 주일 영아부에서는 깜짝 파티가 열렸다. 그동안 엄마와 아이만 영아부 예배를 드린던 가장이 아빠를 초대한 것. 이날 아빠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용 더 할 섬겨달라는 의미로 엄마들에게서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금메달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염려함이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마' (히 12:1).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기대 그리고 기도

● 청지기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제목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마 6:13). '어~주기도문 내 용이네? 이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까?' 지적, 영적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시킨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아파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영적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 합당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미리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몸소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셨고(마 4:1~11)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오시길 것을 요청하셨기에(요 17)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오시기를 받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박예경(청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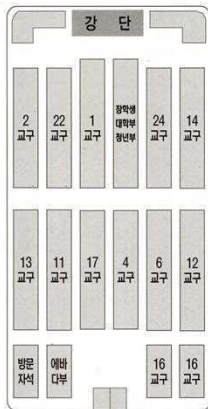
● 범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는 세상 것들, 그 임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여호수(청년1부)

● 이번 청지기 훈련에서 무너진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예수님일 외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길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윤용성(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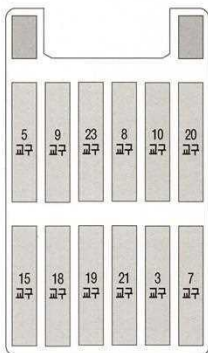
● 주님의 일꾼으로서 항상 쉬지 않고 훈련을 하여야 하는 직분자이건만 늘 나타내고 불성실한 믿을 생활 속에서 좀더 성숙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감사와 기도로 청지기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어 입들여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인영(양수집사, 24교구)

청지기훈련 좌석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안내

- 이번 주 화요일 기도원 집회 및 금요구역예배는 쉽니다. 단, 금요일 기도원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청지기훈련 시 부를 찬양을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주기도/시험 받을 때에/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주의 곁에 있을 때/너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힘한 시험 속 속에서)
- 탁아부실(선교관 1층, 작은 방:0~3세, 큰 방:4~7세)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세 이하) 및 베다니홀(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하십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차차위번호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16	최 훈	17	청년1부	박대선(16)	738	안민주	18	고등부	박요섭(21)
717	이무중	6	대학부	김민정(7)	739	배상희	10	초등1부	손영남(10)
718	신예지	10	중등2부	최예진(10)	740	강경진	7	청년1부	김경숙(23)
719	유성희	2	장년2부		741	한기현	20	고등부	강문구(20)
720	이주은	21	초등2부	김병수(21)	742	심민섭	5	대학부	김지윤(5)
721	안병준	24	초등2부	장선지(24)	743	서남희	15	청년2부	이순자(24)
722	백희봉	15	대학부	김형규(2)	744	오누리	23	대학부	장나혜(10)
723	박진영	16	대학부	이주원(7)	745	신경선	6	청년2부	김요한(6)
724	조서연	4	초등2부	백인애(4)	746	이종현	18	대학부	김선미(15)
725	김효정	19	장년1부	강희영(19)	747	김원준	13	대학부	윤용성(18)
726	김지현	19	초등2부	정혜민(19)	748	석태호	4	청년1부	홍정민(2)
727	남상표	12	청년1부	김성자(9)	749	서유원	20	청년1부	강진규(20)
728	이서영	12	유치부	권정순(11)	750	김정현	20	청년1부	정은혜(10)
729	유금자	20	장년2부	황영숙(8)	751	송혜경	20	장년3부	윤석원(2)
730	김진자	17	청년2부	한지혜(17)	752	홍신미	21	대학부	권영원(22)
731	최민용	5	청년1부	양하은(4)	753	문희자	1	장년3부	최미지(7)
732	김진희	24	초등2부	백광진(24)	754	전상식	18	청년1부	김진갑(9)
733	조규애	20	청년2부	인혜진(22)	755	권희선	17	대학부	김혜린(11)
734	김진철	8	장년1부	주낙진(11)	756	김종훈	6	대학부	박성준(8)
735	사라	25	외선부	장용숙(21)	757	고정민	20	청년1부	장성준(16)
736	참스란	25	외선부	양송백(21)	758	한혜미	17	청년1부	한방수(8)
737	도리(圖)	25	외선부	장용숙(21)					

6월

총현 기도의 창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llegible]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0일 2월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강정원 목사)	교육관 303호	구원론 (이순식 목사)	교육관 504호	유아세례? (김정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구별 장소	문답	구별 장소		
27일 2월	전날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한영애, 분당) 유아 학습: 유아세례(이영희, 분당)				유아 세례	오후 3시, 길원리교회 02월 27일 303호에서 진행함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지병강	양재용/이성남	탁정현/이선종	김익환/최계열	하종철/김준민	안치원/이영실	김성현/오영욱
설교 본문	메시아의 죽음	히 11:11-19	히 11:20-31	히 11:32-40	히 12:1-13	히 12:14-29	히 13:1-9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6/23	수요Ⅰ	서 원(전5:1-4) 김성권 목사	이순식	황창희	주님의 마음을 뵈는 자(호산나 찬양대)
	수요Ⅱ	행악자의 믿음(눅 23:30-43) 박지훈 목사	황의연	황 창	오 놀라운 구세주(실로암 찬양대)
6/25	창치우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귀시고(마 6:13) 김성권 목사	양대현	이세영	기도의 시간(영광찬양대)
6/27	주일Ⅰ	하나님의 절분(창 41:5) 이순식 목사	하형욱	전준배	(예배 전 찬양)
	주일Ⅱ	하나님의 절분(창 41:5) 하종현 목사	김성현	이창희	
	주일Ⅲ	하나님의 절분(창 41:5) 김성권 목사	양재홍	윤성민	
	주일Ⅳ	하나님의 절분(창 41:5) 이재현 목사	박옥선	박용규	
	주일Ⅴ	하나님의 절분(창 41:5) 김근영 목사	김운형	구재환	
	주일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다(출 3:1-2) 김성권 목사	이광현	김성호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구분	시간	차량
최초종리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산양교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후에는 몇몇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드리는 오전 11:30에 드리는 주일 예배 후에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중언을 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장 장 장 장 소 사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에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탁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림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새가 국내 영유 출생 인구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분	시 간	장 소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1호
강 사 부	오후 12:15	갈림길 1층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형성) 오후 1:00(합인)	제2교육관 1층
	(주)오전8:30-오후6:00 (수)오전10:30-12:00 (금)저녁6:30-저녁9:00	선교관 1층
양 육 부	오후 12:10	백 다 너
선 교 부	오전 11:00	아 멘
도 심 부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1층
인 미 부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수업교육	충북보건관